

4인가족 김장비용 작년보다 올라

올해 24만원으로 13% 상승... 물혹병과 마름병 피해로 전체 생산량 감소 탓

올해 4인가족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13% 상승한 2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배추 공급이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물혹병, 마름병의 피해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신선배추를 구매해 김장을 할 경우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은 24만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경우 비용은 28만6,000원으로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장비용 증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김장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주산지인 해남과 무안 등지의 작황 부진

으로 전년(143만6,000t)보다 14%가량 줄어든 123만8,000t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공급량 감소에 따라 올해 성숙기 김장배추의 도매시장 가격은 상품 기준 포기 당 2,000원 내외로, 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낮았던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김장배추 가격은 평년(2010~2014) 동기 대비 23% 하락한 1,384원이었다.

농식품부는 배추, 무, 건고추, 마늘 등 김장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합한 전체 김장 시장 규모는 136,720억 원, 김장배추 수요량은 121만4,000~145만 1,00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 주체별 비중은 일반 가정 72%, 김치업체 23%, 외식업체 5% 등이며, 일반 가정의 김장배추 조달 형태는 절임배추 51%, 신선 배추 49% 수준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절임배추 구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2%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배추 수요량은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 4인 가구 김장 소비량도 배추 22.7포기로 지난해(24.2포기)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철 재료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김장채소 공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며 도소매 가격 동향과 산지 작황 상황을 점검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축 물량 6만2,500t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작겨래 장터 및 흡소평 등 직거래를 확대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 송하진 지사 초청 애로사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전주 르윈 호텔에서 송하진 지사를 초청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중소기업유관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경영현황의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송하진 지사에게 직접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고 진지한 답변이 이뤄졌다.

지역중소기업인들은 송 지사에게 새만금사업 추진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그동안 전북도는 기재부, 새만금개발청 등 중앙부처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우대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작년 5월 도입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항추진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전북도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시업소, 출연기관, 시·군 등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업무 연찬회 등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고유문화유산 홍보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전주한옥마

에 문화예술촌을 설립해 문화콘텐츠를 확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한옥마을내 적정공간을 활용해 공예인들이 합계하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서학동 예술인 마을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예 집적화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촌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북 중소기업항토상품 박람회 개최 지원, 전북도 지원사업 과제선정시 심사결과 상세통보, 협동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 이차보전 확대, 가구전시회 참여 통한 제품 홍보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여러 현안들이 건의됐고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병모 중앙회 지역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현상의 목소리가 지역 중소기업정책에 잘 반영되어 기업할 맛 나는 전북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개공, 근로자 안전위한 평가교육

9개 준공사업장대상

전북개발공사는 4일 대회의실에서 9개 준공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 6개단지, 모한가족호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공사 사옥 등 9개 완성사업장 관리소장 및 관리책임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2013년 공사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의 대형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사항으로 이뤄졌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신상대 차장의 위험성 평가 추진제도 및 필요성, 사후관리, 사업장 재해 예방 발생사례 및 대책에 관한 교육 등도 실시됐다.

이에따라 공사는 11월말까지 관리운영중인 9개 사업장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안전관리공단의 개별 위험성 평가와 컨설팅을 거쳐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2017년 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는 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사의 선도적인 위험성평가 추진시도가 지역사회 우수모델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공단의 현장심사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재용 기자



시티건설, ‘전주 만성 시티프라디움’ 분양

만성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 법조타운 인접 배후수요 ‘풍부’

시티건설이 전주 만성지구에서 실내수영장을 갖춘 대규모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품격 높은 ‘전주 만성 시티프라디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도시개발지구 B블록에 위치한 ‘전주 만성 시티프라디움’은 지하 2층~지상 20층 10개동 전용 84㎡A 517가구, 전용 84㎡B 108가구 등 총 62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주 만성 시티프라디움은 전가구 남향 배치와 4Bay(일부 제외) 판상형 구조가 적용된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광폭 3면 발코니 설

계 및 팬트리(일부 제외)를 제공해 쾌적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시티 프라디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제도 전주 최초로 도입했다.

세련미를 자연스럽게 살린 ‘어반 스타일’과 절제된 감각미가 돋보이는 심플한 ‘모던 스타일’ 총 2가지의 선택형 인테리어를 제공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했다.

전주 시내 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갖춘으며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DVD실, 경로당 등 다양

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더불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해 주거 쾌적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였다.

전주 만성시티프라디움은 전주 만성지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 분양인 만큼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또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이 이전하는 만성지구 법조타운과 인접해 풍부한 배후수요 물론 법조타운 개발에 따른 수혜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